코로나19에 대입 논술 미루고 실기 줄이고

대교협 "198개 대학 중 101곳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수능 최저기준 완화로 고3 구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3 구제책을 마련하거나 논술·면접 일정 등을 조정한 대학이 늘고 있다.

지난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은 최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별 고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101개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회원 대학 198곳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변수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대교협은 올해 4월까지 대입 전형 위원회를 열고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탓에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추가로 대입 전형위원회를 열었다.

◇ 학생 분산 위해 논술 일정 연장…대교협 회원 대학 51%가 대입계획 변경=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면접, 실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전형 기간을 조정한 대학이 96곳(이하 중복 포함)에 달했다.

대학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논술 고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면접·실기·논술 기간을 확대해 수험생을 분산할 방침이다.

연세대는 수시 논술 일정을 10월 10일에서 수능(12월 3일) 뒤인 12월 7~8일로 미뤘다. 고려대는 수시 학생부종합(학종) 전형 면접 일정을 11월 21일에서 11월 21~22일로 이틀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실기 고사 종목을 축소한 대학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는 수시 예체능 특기 우수자 전형에서 실기 종목 중 하나인 오래달리기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실기 고사 대상 인원을 축소한 곳도 13곳에 달했다. 한양대는 미술 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0배수를 뽑기로 했다가 10배수로 줄였다. 중앙대, 경희대, 전북대 등 28곳은 특기자전형의 대회 실적 인정 범위를 변경했다. 코로나19로 일부 대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처다.

홍익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27곳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자격 충족, 체류 기준 등 요건을 변경했다.

◇ 대교협 "수험생 유·불리 최소화해 변경…추가 변경 승인 없어"=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한 곳은 서울대 1곳뿐이었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음악대학 제외)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정시 일반전형에서 출결·봉사·교과이수기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능 점수에서 감점했으나 올해는 그 기준을 없앴다.

가톨릭대와 충남대, 한국체대 등 다른 대학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수험생 집단 간 유·불리 문제로 반려됐다. 재학생만 응시 가능한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달리 나머지 대학 전형은 재수생도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대교협 측의 설명이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을 폐지한 것도 서울대가 유일했다. 서울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에서 출결·봉사활동 등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입 전형위원회를 추가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 캠프 '내 안의 꿈을 펼쳐라' 개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유학생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과 자신의 꿈을 실현할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역량 개발과 스펙 향상을 위해 최근 사흘간 'K Spec-up 호남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캠프, 내 안의 꿈을 펼쳐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학부 3·4학년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이나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호남대 제공〉

동강대, 캠퍼스 방역 활동 … 학사 운영 준비 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1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마치는 등 차질 없는 학사 운영 준비를 끝냈다. 동강대는 2학기 학사 운영안을 마련하고, 캠퍼스 방역 활동을 펼쳤다. 또 1일 개강 후 2주차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7주차(9월14~10월17일)에는 '대면+비대면' 혼합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강대 제공〉

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제6회 교육자치 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어 이 같이 확정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설치된 협의체다. 교자협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실행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탈정치적·탈이념적으로 국가 교육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현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자협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법령 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학생 위원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교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연합뉴스

전남대 국문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7년 대장정 마무리

지역어를 기반으로 문화가치 창출을 도모해왔던 전남대 국문과 'BK21플러스 지역어기반 사업단' 사업이 7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사업단은 최근 인문대학에서 7년 동안 수행해 온 사업을 종료하며, 사업성과 발표와 경험을 공유하는 성료식을 가졌다.

사업단은 그동안 14명 교수와 19명 신진연구인력 및 5명의 행정 간사, 98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해 맞춤형 로드맵(PIPO), 서당식 멘토링 시스템, 인문형 LAB, 스토리-마스터 양성과정 등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사업단은 7년 간 약 46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교육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힘써왔다. 향후 7년간 추진될 4단계 BK21플러스 사업에도 예비 선정된 상태이다.

신해진 단장은 "교육사업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공동체 문화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사업단이 이룬 성과는 지역어 문학 기반 연구와 세계 속 한국학 연구의 미래를 비춰줄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대 일자리센터, '직무맞춤형 Career Set Up' 운영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앞으로 3개월간 재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직무맞춤형 Career Set Up'을 개설해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무를 설정하고 탐색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된 장기과정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를 경영지원·사무행정, 영업관리, 생산·품질, IT·인터넷 분야로 모집해 총 10팀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기업분석, 커리어로드맵작성, 직무특강, 입사지원서 특강, 1:1 개별컨설팅, 팀별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윤오남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앞으로도 재학생들에게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학생수 감소 … 교육환경 개선대책 마련 시급"

전남도의회 지적

전남 지역의 학생 수 감소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만7442명이다. 지난해 21만3937명에서 6495명이나 줄어들었다.

전남 학생 수 감소율은 3.0%로 전국 평균 감소율 2.1%보다 높았으며, 전북 3.3%·대전 3.2%·대구 3.1%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 목포) 의원은 자료를 내고 "전남 학생 수가 20만명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아이들 교육 때문에 타 시도로 떠나는 전남 학부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와 교육정책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